

No. 25

“Hypothenar hammer syndrome”의 증례보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김형준* · 이병일 · 김우경

혈전증은 일반적으로 혈액의 성질, 상태, 혈류 및 혈관벽의 변화 등에 의해 혈액의 응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상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비교적 드물며 특이하게도 수근부에 있어서는 척골동맥(Ulnar Artery)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근부의 둔외상으로 인한 척골 동맥의 혈전증은 해머 작업자(Hammer Worker)에서 발생 빈도가 높음이 꾸준히 보고된 바 있으며 “Hypothenar hammer syndrome”으로 알려져 치료에 대해서도 수술적요법으로 혈관 재건수술을 하는 경우와 약물치료로 혈행을 개선하는 방법 등이 소개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성형외과에서는 뚜렷한 외상의 과거력이 없이 두달간 지속된 좌측 약지와 소지의 저림과 한냉시의 동통을 호소하는 15세 남아가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수장부 척측에 1x0.5cm 크기의 무통의 단단한 종괴가 만져졌으며 Allen's test에서 척골동맥의 혈행이 의심스러워 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요골동맥이하 심장궁의 조영은 정상적이었으나 유구골 원위부부터 천장궁으로 이행하는 1.5cm의 척골동맥이 조영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혈전 혈관 제거술 및 척골동맥-천장궁간 동맥에 정맥이식술을 실시하여 술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그 임상적 특성, 방사선 및 조직소견과 치유 및 재건의 방법을 보고하고자 한다.

No. 26

일측성 반추궁 절제만으로 하는 경막내 수외 종양 제거법

인천 중앙 길병원 신경외과

정환영* · 강동수

경막내 수외 척추 종양 수술을 위하여는 종래 극상 돌기와 양측 척추궁을 모두 제거하여왔고, 현행 수의학 책에도 그렇게 돼있다. 그러나 미세 술식을 적용하여 일측성 부분적 척추궁 제거만으로 하는 수술법을 발전시켜 보았다.

경막내 수외 종양을 대상으로 하였다. 증상과 척추 조영 사진 및 CT 또는 MRI 소견에 따라 좌·우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정하여 반추궁 절제술만을 행한다. 후방 소관절은 내측 부분 절제만을 시행한다. 경막 후중양부에 접해 있는 골 조직 및 황색 인대는 이를 제거하여 경막에 대한 수술 시야를 넓힌다. 경막 절개후의 수술은 종래의 방법과 같다.

94년 이래 8례에서 이 술식을 시행하였는데 4례는 경추부, 3례는 흉추부, 1례는 요추부였다. 신경 섬유종이 6례, 수막종이 2례였다. 척수액 누공이나 감염 등 합병증은 없었고 환자는 수술 다음날 바로 화장실 보

sites of reconstruction were lower extremities in 11 cases, face in 2 cases, forearm and pelvis in each 1 case. The causes of soft tissue defect were chronic osteomyelitis combined with soft tissue defect in 4 cases, traumatic soft tissue and skin defect in 5 cases, hypertrophic scar contracture 3 cases, tumor 3 cases, and cavernous hemangioma 1 case. We also have transferred combination flaps of latissimus dorsi muscle in 2 cases and rib bone graft in 3 cases. Overall success was 100 percent, with a single flap partial necrosis. No patient noticed any change in upper extremity function. The advantages of free serratus anterior muscle flap are 1) reliability with long, consistent, and large diameter pedicle, 2) easy flap dissection, 3) combined transfer, 4) less donor site morbidity, and 5) less postoperative bulkiness. Accordingly, it was flap of choice for small to moderate sized soft tissue defects in various site reconstruction.

No. 25

A Case Report of "Hypothenar Hammer Syndrome"

Hyung Jun Kim, M.D.*, Byung Il Lee, M.D., Woo Kyung Kim, M.D.

Department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Ulnar artery thrombosis is the most commonly encountered arterial occlusive disorder in the upper extremity. This condition was called "hypothenar hammer syndrome" because of its frequent occurrence among hammer workers.

Patients often are seen initially because of ischemic pain in the ulnar digits. This pain is exaggerated when patients are exposed to cold environment.

We experienced a 15 years old boy, who was suffering from same symptoms without any previous specific traumatic episodes. On the angiography his ulnar artery was totally obstructed from the distal area upon the hamate to the beginning of superficial palmar arch.

Upon the diagnosis of ulnar artery thrombosis, we excised the thrombotic artery and performed end to end anastomosis with autogenous vein graft.

After following-up for a year, his symptoms were improved and the grafted vessel was patent on the post-op angiography. We are assured of the infrequency of this pathology, so willing to report this case.